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도쿄해상홀딩스, 일본 최초 인도 생·손보시장 진출

□ 도쿄해상홀딩스는 최근 2011년 영업활동을 목표로 인도 생명보험시장 진출 계획을 밝혀 주목됨.

- 도쿄해상홀딩스는 인도의 금융서비스 회사인 에델바이스캐피탈(ECL)과 합작 생명보험회사 에델바이스도쿄생명보험을 설립하는데 합의하고, 2011년 1월 영업을 목표로 인도 금융감독 당국에 허가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도쿄해상홀딩스의 인도 생명보험 합작회사 ‘에델바이스도쿄생명보험’ 개요

항목	주요 내용
본점 소재지	- 인도 뭄바이
자본금	- 55억 루피(약 110억엔)
출자 비율	- 도쿄해상홀딩스 : 26%, 에델바이스캐피탈 : 74%
전략	- 설립 초기에는 개인대리점을 통해 저축성보험상품 위주로 판매 예정 - 이후 단계적으로 상품 및 판매망 확충 계획

자료 : 인도신문(2009.11.23)

- 영업허가가 통과할 경우, 도쿄해상홀딩스는 생·손보 모두를 취급하는 일본 최초의 보험회사가 됨.

□ 도쿄해상홀딩스의 인도 생명보험시장 진출은 최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려는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임.

- 도쿄해상홀딩스는 선진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 영국 로이드 산하 킬른과 미국 손해보험회사인 필라델피아콘솔리데이티드를 인수함.
- 아울러 아시아, 브라질 등과 같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보험사업을 확충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인도보험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도쿄해상홀딩스는 이미 2000년에 인도농민비료공사(IFFCO)와 합작 손해보험회사인 IFFCO-TOKIO General Insurance Co, Ltd (ITGI)를 설립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연평균 26%(2001~2007년)씩 성장하는 인도 생명보험시장(2008년 3월 기준 약 4조엔 규모) 진출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NNA ASIA, 인도신문, 11/23)